

고1
공통국어1
비상(박)

2026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 1(1) 산속에서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산속에서」는 시각적 심상, 대조적 의미의 시어, 도치법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주제 의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시에서 긍정적 의미로 쓰인 시어와 부정적 의미로 쓰인 시어를 정리하고, 화자의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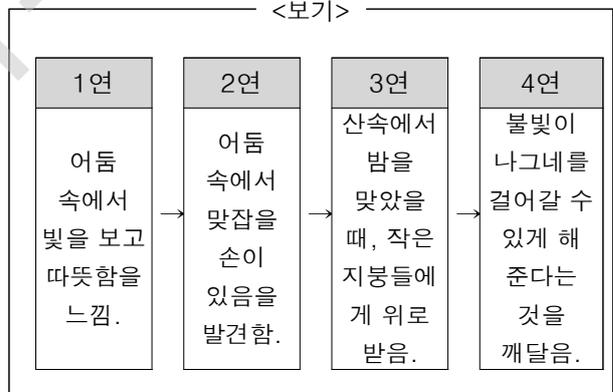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 나희덕, 「산속에서」

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을 통해 인간의 무기력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시적 화자는 자연을 관찰하며 삶의 허무함을 느낀다.
- ③ 시적 화자의 경험에서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가 자연과의 갈등을 표현하며 고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는 이 시의 시상 전개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며 점차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구성이다.
- ②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유사한 내용을 담아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시적 화자가 주변 환경을 묘사한 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 ④ 시적 화자의 정서가 특정 순간에 급변하면서 시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구성이다.
- ⑤ 시적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반복되는 구성이다.

3.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나그네'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앞만 보고 걷도록 하시오.
- ② 어둠 속에서는 조용히 머물며 때를 기다리시오.
- ③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 용기를 내고 함께 걸어갑시다.
- ④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배움을 얻으시오.
- 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멈춰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오.

4.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론 영혼의 냄새가 방 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 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지워 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면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 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몇몇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 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직 향기론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정진규, 「연필로 쓰기」

- ① 두 작품 모두 시적 화자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
- ② <보기>는 산문시로, 산문의 형식을 띠지만 시적 언어를 통해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 ③ 두 작품 모두 반복적인 표현과 비유적 언어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 ④ 이 시는 <보기>와 달리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묘사로 정서를 전달한다.

- ⑤ <보기>에서는 '향기론 영혼의 냄새'라는 표현을 통해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어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에서 '어둠'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불안을 의미한다.

- ① 길 ② 불빛 ③ 밤
- ④ 맞잡을 손 ⑤ 작은 지붕

6.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 ②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
- ③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
- ④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겨내야만 성장할 수 있다.

7.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 ①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 개나리가 망울졌다. //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 체니 [少女]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슬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 구상, <초토의 시1>

- ② 구름 흘러가는 / 물길은 칠백 리(七百里) //나그네 긴 소매 / 꽃잎에 젖어 // 술 익는 강 마을의 / 저녁노을이어

- 조지훈, <완화삼>

- ③ 이 비 그치면 /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 이수복, <봄비>

- ④ 하늘에 깔아 놓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속삭이
듯 서격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 노래
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박남수, <새>
- ⑤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빛 발
(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 박재삼, <추억에서>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툼툼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8.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② 처음과 끝이 동일한 구절로 반복되며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 ③ 특정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④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문장을 명사로 끝맺으며 반복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9.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몫이야.
- ②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니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해야겠어.
- ③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
- ④ 삶에서 맞닥뜨리는 시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 기꺼이 받아들여야겠어.
- 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10.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삶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 ③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며 고독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다.
- ④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을 비판하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

11.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였다
- 나희덕, 「푸른 밤」

- ② 얻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가에서>
- ③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
고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④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규, <외인촌>
- 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그 때에 내 말이 “잇었
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여정을 비유하여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 ② 이 시와 <보기>는 모두 강조된 반복적 구성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이 시와 <보기>는 모두 ‘개인의 경험 → 삶에 대한 깨달음’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④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원하는 대상과의 거리감이 나타나는 표현이 드러난다.
- ⑤ 이 시와 달리 <보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현재의 감정을 강조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12.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난을 마주할 때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여정이 힘들더라도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삶의 어려움은 결국 개인이 홀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 ④ 낮은 환경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며, 이를 삶의 지혜로 삼아야 한다.
- 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 줄 존재가 있다.

13. 다음 중 ㉠과 같은 심상이 나타나는 것은?

- 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목민배포공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산속에서 밤을 맞으며 자연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어둠’, ‘작은 지붕들’, ‘불빛’ 등의 시어를 통해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타인의 따뜻함과 위로가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① 이 시에서 자연은 인간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요소로 등장한다. 무기력함보다는 희망과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② 시적 화자는 자연을 보며 허무함이 아니라 위로와 따뜻함을 느낀다. 특히 ‘불빛’, ‘맞잡을 손’ 등의 표현은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었지만, 자연의 신비로움보다는 삶의 깨달음과 위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시에서 자연은 시적 화자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시적 화자를 감싸 주고 위로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갈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⑤

시적 화자는 산속에서 밤을 맞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존재가 있으며, 그것이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따라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과 위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연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름다움’보다는 삶과 연결된 의미가 중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수미상관이 적용되지 않았다. 마지막 연에서는 불빛이 나그네에게 길을 안내하는 깨달음이 강조되며, 이는 첫 연과 같은 내용이 아니다.

③ 이 시는 자연의 묘사가 있긴 하지만, 환경을 묘

사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강조된다.

④ 시적 화자의 정서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점차 희망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는 구성은 아니다.

3. 정답 ③

이 시에서 ‘나그네’는 길을 걷고 있는 존재이며, 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시적 화자는 나그네에게 어둠 속에서도 맞잡을 손이 있으며, 불빛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이 시는 타인의 존재와 따뜻함을 느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시적 화자는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빛을 보고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④ 이 시에서 어둠(시련)은 단순한 배움의 대상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위로와 따뜻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⑤ 이 시는 머물러 있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멈춰서 돌아보는 것보다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4. 정답 ④

<보기>는 산문시로, 형식은 산문과 유사하지만 시로서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개인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며, 이 시 역시 ‘어둠’, ‘불빛’, ‘작은 지붕들’ 등의 함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① 이 시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할 ‘손’과 ‘불빛’을 통해 희망을 찾는 태도를 담고 있다. <보기>의 「연필로 쓰기」는 연필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삶을 반성하고, 용서와 포용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② <보기>는 산문시로, 형식은 산문과 유사하지만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개인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③ 이 시에서는 ‘불빛’, <보기>에서는 ‘연필로 쓰기’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는 단순한 물리

적 냄새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타인을 감싸는 포용적 태도를 상징하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③

이 시에서 '어둠'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슬픔과 불안을 의미한다. '밤' 역시 어둠과 같은 시간적 배경을 가지며, 불안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시어이므로, '어둠'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는 '밤'이다.

① 이 시에서 '길'은 나그네가 계속 걸어가야 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므로, '어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불빛'은 '어둠'을 밝히는 요소로, 오히려 희망과 따뜻함을 상징한다.

④ '맞잡을 손'은 타인과의 관계, 위로, 연대감을 나타내는 시어로, '어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작은 지붕'은 산속에서 시적 화자를 감싸주는 보호와 위안을 상징하는 시어다. '어둠'이 주는 시련과 불안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6. [정답] ③

이 시에서 '새로운 발견'은 어둠 속에서도 '맞잡을 손'이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새로운 발견'의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다.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시에서 '새로운 발견'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해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환경을 바꾸거나 떠나는 것과는 관계없다.

⑤ '새로운 발견'은 타인의 존재를 깨닫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7. [정답] ①

이 시는 6·25 전쟁 직후, 아직 아물지 않은 민족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젓더미'의 죽음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개나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시는 제목에서도 드러났듯이 '완화삼', 즉 꽃을 보고 즐기는 선비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꽃잎'은 유량하고 있는 나그네가 바라본 대상이다.

③ '풀빛'은 화자에게 서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④ 새가 부르는 '노래'는 순수하고 꾸밈과 거짓이 없는 자연을 나타낸다.

⑤ '은전'은 어머니의 고달픔과 가난함을 형상화하는 시어이다.

8. [정답] ①

이 시에서는 '불빛'과 '어둠' 같은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구절로 마무리되는 수미상관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는 하나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묘사하기보다는, 시적 화자의 내면적 깨달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④ 이 시에서는 역설적인 표현보다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한 의지보다는 깨달음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시에서는 명사형 종결이 주요 표현 기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9. [정답] ⑤

이 시의 주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타인을 위로하고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시의 주제와 잘 맞아 떨어진다.

①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따뜻함과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시적 화자의 생각과 반대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혼자 견디는 힘보다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이 시

는 '시련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돕는 존재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②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불빛을 발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①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자연의 풍경을 단순히 감상하면서도 아닌, 자연을 바라보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는 사회 비판적 성격을 지닌 시가 아니다.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희망을 찾는 과정이 중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시적 화자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를 실천하려고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③

이 시는 '개인적 경험 → 깨달음'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전개를 찾아볼 수 없다. <보기>의 시는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도, 그 길이 멀고 험난했음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① 두 작품 모두 길을 걸어가는 행위를 삶의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② 두 시 모두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며 시적 정서를 강화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이 시의 '먼 곳의 불빛', <보기>의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라는 구절은 원하는 대상과 거리감을 동시에 보여준다.

⑤ <보기>는 회상의 형식을 취하면서 현재의 감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반면, 이 시는 현재 시점에서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강조한다.

12. 정답 ⑤

'작은 지붕들'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존

재를 상징한다. 이 시구를 통해 화자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① 3연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위로와 도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3연의 핵심은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보다는 '따뜻한 존재가 어려움 속에서 힘이 되어 준다'는 점이다.

③ 3연에서는 개인이 혼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붕들'과 같은 존재가 힘이 되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낯선 환경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내용은 잃어 버린 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3연에서는 따뜻한 존재들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④

'푸른 종소리'는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으로 시각을 촉각적으로 표현한 ㉠과 같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⑤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